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 회원후원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3천 구재형, 김경선, 김찬호, 정필규, 조성진, 3천5백 가월현, 김경현, 김경휘, 김은호, 김태우, 김희원, 남지민, 노주하, 생명의강, 영음사, 정세열,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한진영, 황보남이, 5천 구성덕, 구재환, 권영중, 권지연,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도희, 김미정, 김병국, 김봉우,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영운, 김정명, 김장성, 김정원, 김정준, 김준, 김철수, 김태운, 김항아, 김혜창, 김호태, 박기연, 박승룡, 박준모, 박찬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용,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창은,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하, 이승환, 이원배, 이윤희, 이은순, 이인수, 이진영, 이항숙, 임선재, 임준택, 임형준, 장한일, 전종국, 정수민,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태태, 최 우,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구준희, 김영숙, 민수진, 백은미, 영임교회, 이주희, 최종규, 9천 임고은, 1만 강은정, 강호식, 고은남, 고현경, 권민규, 권성아, 권순범, 김경원, 김경희, 김고은, 김대용, 김동우, 김막미, 김성경, 김성상, 김성인, 김세영, 김세중, 김영남, 김영완, 김용석, 김원, 김은덕, 김은순, 김은혜, 김성호, 김중국, 김중화, 김중훈, 김진아, 김창현, 김현경,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호숙, 나동훈, 남서희, 류익근, 류화원, 마민호, 박강국, 박능안, 박대원, 박두환, 박영주, 박정욱, 박종원, 박종원, 박중훈,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서화진, 소종화, 손현택, 송미정, 송중철, 신상형, 신상자, 신성혜, 신현주, 신호기, 안 석, 안용준, 양병국, 양성만, 양행모, 양해원, 엄지은, 오지순, 원호영, 유건호, 유영상, 유영준, 유지환, 유해무, 윤상현, 윤영희, 이경숙, 이계삼, 이관후, 이권철,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복, 이명수,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수, 이상엽, 이시영, 이신영, 이연구,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준석, 이지연, 이한길, 이해라,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영, 임일택, 장승재, 장인숙, 장대준, 장명희, 전성규, 장상록,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윤희, 차봉준, 차정규, 최삼원, 최성두, 최세진, 최윤영, 최진우, 최한민, 주진연, 대영숙, 하진호, 한인만, 한정호, 한혜실, 허찬영, 허 현, 현승진, 홍선호, 홍성석, 홍준호, 홍철인, 황규영,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1만5백 정경식, 1만5천 김선화,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김광순, 김승욱, 김요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문석우, 박영태, 박 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환아, 양성만, 우시정, 윤동수, 이 건, 이근호, 이대환, 이명희, 이정규, 이현정, 전광학, 3만 김동원, 김병룡, 김상범, 김승남, 박상진, 박신현, 서성록, 오익석, 우병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정수영, 정동섭, 조우성, 최용준, 추태화, 황의석, 황정진, 4만5천 김효순,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박시운,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희영, 조성태,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10만 김승태, 김원수, 김익원, 김태환, 박상은, 송봉호, 윤완철, 전광식, 차영실, 최태연, 12만 박동현, 36만 현창기

### 기관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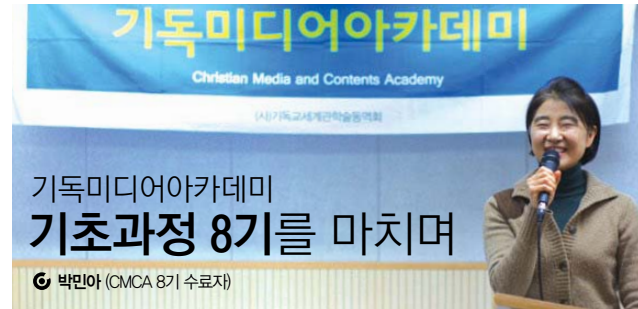
1만 개명교회, 그리스찬연연대책연구, 5만 개봉교회, 대구서교회, 두레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군산성광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예교회, 신정원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열린교회, 예성교회, 자유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0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백만 엘비전

※회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통의회는 매일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통의회)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8기. 그 4개월간의 교육과정이 끝났다. 졸업작품 시사회 및 수료식이 있던 2월 2일 토요일, 수료자인 우리들은 4개월 전 서로에게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함께 개강 예배를 드렸던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에 다시 모였다.

영상캠프를 마친 직후부터 시작된 졸업작품 제작. 한 달 남짓 각자의 시간을 쪼개어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시사회 시간도 진지했다. 4개월 동안 배운 영상이라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첫 걸음으로 우리는 총 6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장르는 다양했다. 드라마, 뮤직비디오, 범죄스릴러, 코미디 등. 모두의 작품에서 짧지만 그동안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내려고 애쓴 깊은 고뇌와 고생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 프리미어(영상 편집기)의 '프' 자도 모른다며 편집이 어려워 투덜거리고, 컷(cut)의 개념 짜리 단편영화 스토리를 그렸던 초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모두가 뿌듯한 시간이었다. 이어지는 강령에서 유지는 PD님 또한 놀랍게 발전한 8기의 작품과 그 열정을 칭찬하셨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는 2012년 10월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기독교 세계관 강의와 미디어 실무교육이 약 20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신국원, 이인용 강사님 등 한국 기독교계의 내로라하는 강사진들로 구성된 세계관 강의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문화분별력,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경제관, 커뮤니케이션 모델 등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며 앞으로 미디어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계관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배웠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며, 우리는 그 세계관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 예비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시사문 화큐티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이슈들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하는 훈련을 했다.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선배 실무자인 PD님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진행되었던 미디어 실무수업은 개인영상연출, 뉴스제작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스스로 제작해보고 평가를 받았다. 이론을 공부할 뿐 아니라 직접 기획, 연출하고 발품을 팔아 제작하는 과정들을 통해 영상의 힘과 그 미학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영상캠프와 졸업작품 제작과정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그동안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하게 특정 콘텐츠에 담아내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획의도와 주제를 정하고,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와 장르를 고민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배웠다. 한정된 인력과 장소로 어떤 선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화면 안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씨름하는 과정은 메신저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다.

이 과정 속에 무엇보다 값진 것은 팀 작업을 통해 느끼게 된 공동체 의식이다. 같은 비전을 품고 미디어라는 분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노력하는 사람들. 수료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같이 이 과정을 통해 만난 '인연'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폐회에배에서 손봉호 교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9절 말씀을 통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는 나팔이 아닌 분명한 소리를 낼 줄 아는 나팔이 되라고 하셨다. 수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메시지, 듣는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거짓을 피하고 정직한 언론인이 될 것을 강조하셨다.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걸어주시던 피디님들은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격려하시며 많은 경험이 빛나는 결과물을 낳게 될 것이니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짙고, 더 붙여보고, 더 만들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사회로 나가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라고 권면하셨다.

미디어가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자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생명을 말하기 위해 적지만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의 길을 뚫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미디어라는 분야에서도 일하신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학생들이 그 뒤를 이어, 주어진 길에서 생명을 말하고,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군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 졸업작품

아래 작품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학생들의 작품으로 해당영상은 CMCA홈페이지 [www.cmca.or.kr](http://www.cmc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1 조

|             |  |
|-------------|--|
| <b>조 원</b>  | 기호진 이미란 금야름  |
| <b>장 르</b>  | 드라마  |
| <b>제 목</b>  | 항기   |
| <b>기획의도</b> | 눈에 보이는 외모나 현상만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요즘, 내면의 죄로 인한 고통을 "충치"라는 소재에 비유하여 우리 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
| <b>시놉시스</b> | 직장 5년차 대리, 노총각 김상훈씨는 건강영려증 증세가 있는데, 엄 살쟁이다.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 아침 일찍 일어나 상훈은 출근 눈으로 양치질을 한다. 회사에서도 업무 중에 채팅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상사에게 보고를 제대로 못해서 혼이 난다. 부하직원들에게도 입냄새와 비난하는 말투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김대리. 우연히 자신을 싫어하는 부하직원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 상심한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지만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진 이유가 입냄새가 아닌 남을 타는 자신의 말투 때문임을 알게 된다. |

### ● 4 조

|             |  |
|-------------|--|
| <b>조 원</b>  | 이수원 김성혜 김찬미 김승득  |
| <b>장 르</b>  | 범죄스릴러  |
| <b>제 목</b>  | 기면   |
| <b>기획의도</b> | 문자나 폭행, 살인, 강도 등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범죄인 대처도 확고하지 않는 지금 이 세상 배경으로 기획을 하였다. 그런 사건들의 뉴스를 접할 때 댓글들을 보면 기독교인을 비방하며 "이런 사건도 너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냐?" 라는 목소리가 꼭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한 남자의 용서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담았다.   |
| <b>시놉시스</b> | 한 남자가 요즘 TV나 신문 등으로 문자나 폭행, 문자나 살인 등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 남자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며 이 세상을 비난하고 저런 아이들은 평생 공방이나 먹거나 사형을 시켜 버려야해라며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을 비난한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인부진화를 건다. 한밤중 집에 들어가려는 여자가 어느 남자랑 부딪힌다. 이에 목소리를 높이며 한바탕 실랑이를 한다. 여자가 집으로 가는 중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는 기분에 걸음걸이 점점 빨라진다.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길 길을 가려는데 밤금 전 실랑이를 벌인 남자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어느 방안에 여자가 갇혀있다. 남자가 여자를 해치려는 자나,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사이 여자는 도주계획을 세운다... |

### ● 2 조

|             |   |
|-------------|---|
| <b>조 원</b>  | 유혜연 권혜진 윤지연 조단비   |
| <b>장 르</b>  | 드라마   |
| <b>제 목</b>  | You are special   |
| <b>기획의도</b> | 하나님은 토기장이, 사람은 그릇.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의 특별한함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비교할 때가 많다.    |
| <b>시놉시스</b> | 남몰래 정원을 좋아하던 단비는 정원이 해연에게 팔자를 선물로 주는 것을 보여 마음이 상한다. 단비의 생일에 뭔가 특별한 선물을 기대하지만, 생각없는 친구들의 선물과 정원의 편지 한 장에 실망하게 되는데... |

### ● 5 조

|             |   |
|-------------|---|
| <b>조 원</b>  | 이주호 신효리원 장하라 황경수  |
| <b>장 르</b>  | 드라마   |
| <b>제 목</b>  | 살의 무게에 힘들어하며 줌도독으로 생활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
| <b>기획의도</b> | 하나님은 토기장이, 사람은 그릇.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의 특별한함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비교할 때가 많다.  |
| <b>시놉시스</b> | 고아원 출신의 하라는 고상한 취미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바로 김비싼 물건을 순간적으로 손에 넣는 것인데 하라의 기술을 훔쳐 보던 한 남자가 하라의 삶에 접근하게 된다. 일방적인 이 단발신사의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지만 하라에게는 의미없는 이 세상을 떠나려고 계획한 D-day가 다가오고 있는데... |

### ● 3 조

|             |  |
|-------------|--|
| <b>조 원</b>  | 안성진 백민아 구하정 정창대  |
| <b>장 르</b>  | 드라마/미스터리/무지개미디오  |
| <b>제 목</b>  | 환수영고래  |
| <b>기획의도</b> | 외로움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나는 너희를 홀로 창조하지 않았다"   |
| <b>시놉시스</b> | 제출하는 보고서는 줄줄이 퇴짜를 맞는 사회초년생 성진. 주변 친구들의 취업 소식을 들으며 홀로 취직을 준비하는 민아. 그럼 그러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만 물건과 팔레트 살 돈조차 버거운 고등학생 하경.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만 같은 이들의 삶이지만 각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그것이 지니 그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된다. 우리를 홀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상황일지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늘 위로하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 주변과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를 통해 세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작은 기적을 경험한다. |

### ● 6 조

|             |   |
|-------------|---|
| <b>조 원</b>  | 주하은 정지원 재서연 이혜인 (우승하, 김신성, 명재휘)   |
| <b>장 르</b>  | 판타지 영화  |
| <b>제 목</b>  | 86400   |
| <b>기획의도</b> | 나에게 하루의 시간만이 남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데 기획의도가 있다.   |
| <b>시놉시스</b> | 시간이 곧 희박인 세상. 실직자 최건우는 시간을 마음대로 허비하는 삶을 산다. 게으른 생활의 연속으로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트레이닝 바람으로 편의점에 서리안을 사서 나오는 길에 건우는 나무위에 그런 그림을 팔고 있는 한 장님 곁을 지나친다. 장님은 조건없이 그 그림들을 주고, 건우는 생각없이 주머니에 넣고 돌아오는 길에 건우는 자동차와 충돌하고 넘어진다. 건우는 생체시계는 손상된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정신을 다시 차린 건우는 병원에서 자신의 생체시계를 확인한다. 생체시계에는 '2시간' 이 남아있다. 황급히 병원을 나와 ATM으로 급히 달려가는 건우. 충전을 하려고 하지만 기계에 생체시계는 읽히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2시간 밖에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과 빠진다. 차가 민회길 위에서 벌써 2-3시간을 써버린다. 집에 온 건우는 초조함에 생체시계만 바라보고, 고쳐는 방법을 검색해보기도 한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 죽기 전에 부모님과 여동생이 보고 싶어 연락하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다. 친한 친구들마저 바쁘다고 말하며 삶이 얼마 남았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 체면하듯 유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밖을 나선 건우. 30분 정도 남은 시간에 길을 건다가 정남을 만난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건우는 계속 출루라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다. 장님은 잠이 든 건우를 보고 머리끝을 얼고 건우의 시간을 보고가 나기 전 시간으로 환상복귀시켜준다. 눈을 뜬 건우 죽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체시계를 보니 교룡사고 나기 전 시간으로 복구되어 있고 장님은 그 자리에 없다. |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를 보내며

유지은 PD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

지난 2월 4일 토요일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ICA에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4개월간의 짧고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격려하는 자리에 앞서 학생들의 열정과 수고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졸업작품을 시사회하는 시간은 학생들에게나 지도자한 피디들에게나 설레고도 떨리는 자리입니다. 짜르도 다양합니다. 자신들이 주연 배우자 혹은 카메라로 등장할 때마다 까르르 박장대소가 터져 나오니까요. 기독교나 성경, 교회 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대신, 20대 초중반을 살고 있는 청춘들의 삶을 오롯이 담았던 이야기들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비유와 상징을 통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에는 이제 막 영상을 시작하는 초보들이었습니다. 초기에 MT를 가서 조별로 제작했던 첫 영상을 기억하느냐 묻자 그 민망함과 소위 오글거림에 모두 비명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 뚱뚱만 하고 도저히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지 않지, 어떻게 짜야 할지 알 수 없어 부끄럽게 킥킉거리며 시사회했던 그들의 첫 작품이 지금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이제는 영상이라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법 세련되고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을 매기수 보는데도 또 감동의 눈물이 여립니다.

우리는 영상이라는 언어의 폭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영상 언어를 이해하고 즐기는데 익숙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언어로 제대로 된 말을 하고 가지 있는 의견까지 소리 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다양한 창의 시대입니다. 작가가 아니더라도 멋지게 사진을 찍지만 특별히 영상이라는 언어는 개별 이미지가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특정 이야기나 형성되고, 그 이야기나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정서 등이 문자보다 때론 강력하게 소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강력하고도 민감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가치관까지 담을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를 기르는 일이 4개월 만에 완성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8기에 걸쳐 백여 명의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이 일에 도전을 받아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걸음마뿐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영상작품을 상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것은 이 파릇파릇한 꿈들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빛어낸 기적적인 결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대한 간증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곤 합니다. 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크고 놀라운데, 하물며 그 자리에 모인 스무 명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놀라고도 경이로울지 모르겠고도 그렇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싸워야 할 세상 문화의 견고함을 이겨낼 무기 중 겨우 한가지의 날을 길어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할 수 있다는 든든함이 행복이고 힘이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많은 젊은이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유지은PD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영상언어 및 제작 등 미디어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미디어예술학을 전공하였으며 전 불교로덕선 PD로 MBN(매일경제TV), EBS, 아리랑TV, MBC 등의 방송제작 및 상생, 서울시 홍보영상 등을 제작한 바 있다.